

세  
곡  
1  
1  
9  
안  
전  
센  
터

# 붉은 벽돌집 소방서

**임영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선현**

(주)디림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268-5 외 2(공공청사-3용지)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197m <sup>2</sup>
건축면적	553.85m <sup>2</sup>
연면적	1,205.64m <sup>2</sup>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4.4m
건폐율	46.27%
용적률	94.56%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주)은구조기술사사무소
설계	임영환(홍익대학교)+김선현(주)디림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김완기, 정희경, 윤지수
시공	(주)태혁건설
기계·전기설계	(주)하이텍엔지니어링, (주)하이텍이피씨
설계기간	2017. 4.~2017. 8.
시공기간	2017. 9.~2018. 3.
공사비	약 25억 원
건축주	강남소방서



시선을 끄는 붉은 벽돌

건축물은 민간과 공공의 구분에 상관없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개인의 건축이라도 주변 이웃과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도시의 경관은 대형 랜드마크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의 작은 동네건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들이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우리가 늘 보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주변 주택과 잘 어울리는 소방서 외관



© 박영제



© 박영제



© 박영제

상 은빛 알루미늄 파이프 외벽  
 하 총들상황을 내려다볼 수 있는 2,3층 공간



©(주)디엠건축사사무소



©(주)디엠건축사사무소

상 대모산 자락의 자연과 연계한 소방서의 모습  
 하 체력단련실 옆으로 조성된 3층 테라스



©(주)대림건축사사무소



©(주)대림건축사사무소



좌 대모산이 바라다보이는 남측 창  
 우·상·하 전면 공간이 내다보이는 창



©(주)디딤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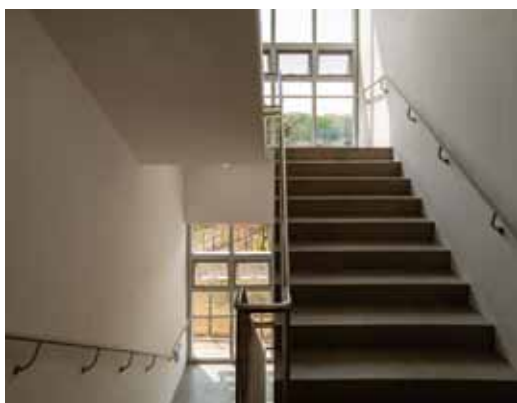


©(주)디딤건축사사무소



©(주)디딤건축사사무소

상 소방관들의 대기·휴식공간  
 중 회의실  
 하 체력단련실



상     **3층 테라스 공간**  
 하·좌   **동선을 고려한 계단실 배치**  
 하·우   **세곡동 주거단지가 보이는 계단실 창**



소방서 건물은 시민들에 눈에 잘 띄기 위해 대부분 붉은 색이다. 세곡119안전센터도 붉은색을 사용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장마감이 아니라 박공지붕의 붉은 벽돌 마감이다. 또 세곡주거단지의 단독주택들과도 어울리는 집의 모양으로 외관을 계획해 일반적인 소방서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벽돌 위 119 숫자는 멀리서도 눈에 띄어 친근한 동네 소방서가 되었다.



©(주)미림건축사사무소

## 좋은 소방서 설계는 어떤 것일까

좋은 소방서 설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어떤 기능이 중요한 것일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어렵잡아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논문이나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공공건축이고 꼭 필요한 시설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강렬한 붉은색 마감과 119라는 커다란 숫자를 제외하면, 소방서 건물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건축적 이미지는 없었다. 자하 하디드의 비트라소방서 정도가 우리가 건축책에서 볼 수 있던 유일한 소방서 건물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면 지명현상에서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좋은 소방서 건축을 정의하는 것부터 설계를 시작해야 했다.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설의 사용자를 만족시키면서, 시설의 공공성까지 구현하는 방식이 과연 무엇일까?

## 주택가 동네 소방서

119안전센터는 작은 동네 소방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한 곳의 소방서를 두고, 인구수와 면적에 따라 여러 개의 119안전센터로 지역을 나누어 관할한다. 업무는 기본적으로 소방서와 비슷하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3교대로 운영된다. 세곡119안전센터는 서울시 강남구의 끝자락에 위치한 세곡동·자곡동·울현동의 화재와 구급·구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대지는 왕복 8차선 도로에 면해 있지만 주변은 거의 2층 높이의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다. 소방서와는 달리 119안전센터는 소규모 건물이다 보니 도심보다는 주택가에 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119안전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적 기피 시설 중 하나다. 출동소음, 배기가스, 소방훈련 탓이다.



남동측면 투시도

© 119 안전센터



상 주변 주택과 잘 어우러지는 소방서 외관  
하 시선을 끄는 붉은 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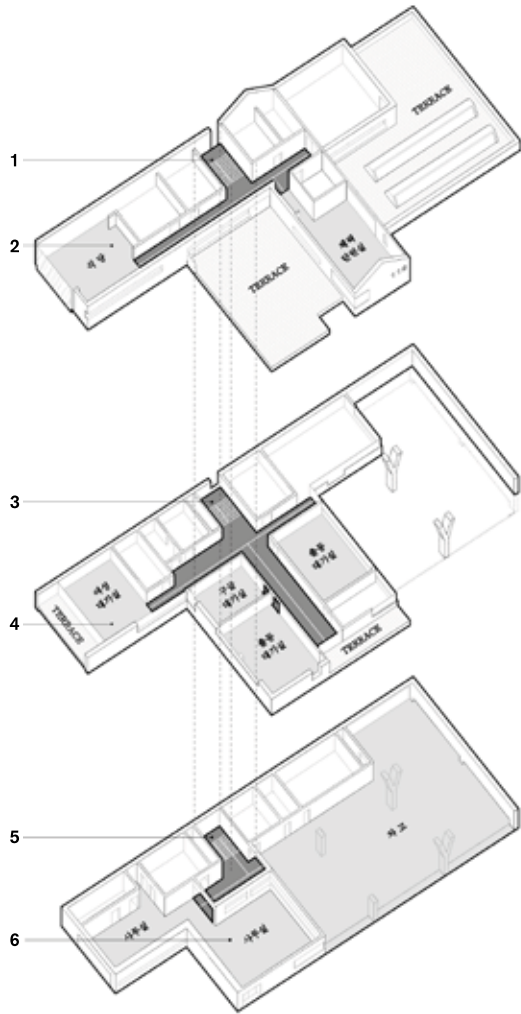
상 소방관들의 대기·휴식공간  
중 회의실  
하 체력단련실

### 출동은 신속하게, 휴식은 편안하게

소방서 설계에서 가장 상반되는 기능과 목적이 ‘빠른 출동’과 ‘편안한 휴식’이다. 빠른 출동은 소방서라는 시설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설계의 최우선 과제임이 분명하다. 반대로 편안한 휴식은 소방관들을 위한, 사용자를 위한 시설의 기능이자 목적이다. 소방관들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재정적인 지원 문제는 다소 해결됐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명감이 없이는 소방관의 책무를 다하기가 어렵다. 소방관들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공간 제공은 분명 소방서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출동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밀려 항상 뒷전이 돼 왔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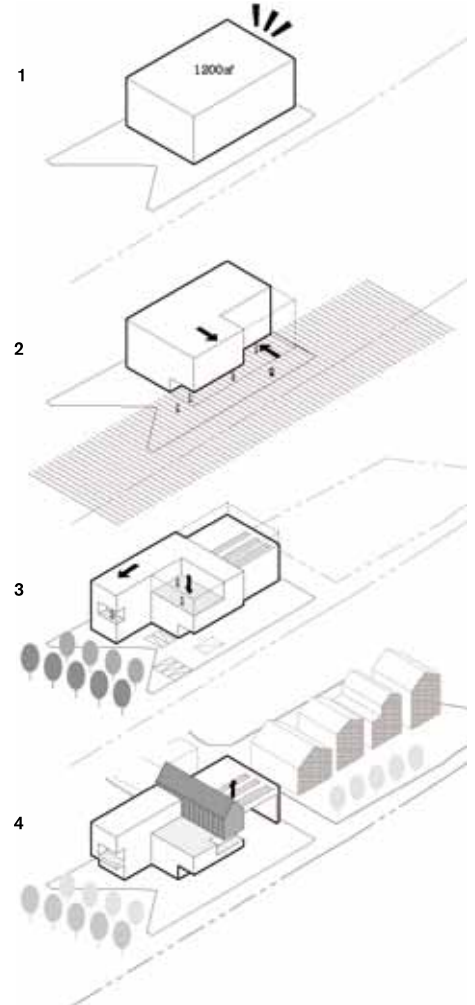
신속한 출동을 위해 우선 건물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했다. 그리고 전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 위급 상황에서도 전면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2층 센터장실은 건물 앞쪽으로 3m 정도 돌출시켜 항상 출동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관 대기실과 회의실은 2개 층 높이의 차고 주변으로 둘러 배치하고 창을 통해 1층 차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계단실은 복도와 같은 쪽으로 일직선으로 연결해 2층과 3층 대기실에 있던 소방관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차고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계획도 배치에서 시작됐다. 대지는 세곡지구 주택단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다행히 남쪽으로는 대모산의 끝자락에 접해 있었다. 세곡주거단지과 대모산의 자연이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한 점을 적극 이용해 소방차고는 북쪽 주거단지에 면해 배치하고 소방관들의 대기·휴식공간은 남쪽 대모산으로 향하게 했다. 자연스럽게 대모산의 사계절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특히 여성 소방관이 머무는 대기실은 대모산과 바로 마주하도록 했다. 3층 식당에서도 대모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넓은 창을 계획했고, 체력단련실 양옆으로는 테라스와 텃밭을 두었다.



- 1 3F 빠른 출동동선
- 2 3F 휴게시설(식당)  
대모산 자락의 자연과 연계
- 3 2F 빠른 출동동선
- 4 2F 휴게시설(대기실)  
대모산자락의 자연과 연계
- 5 1F 빠른 출동동선
- 6 1F 사무실  
대모산자락의 자연과 연계

엑스노메트릭



- 1 프로그램에 적합한 체적 확보  
지상 3층 연면적 1,200m<sup>2</sup>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적정 규모 계획
- 2 출동에 응이한 형태로 변형  
1층의 차고 앞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원활한 출동동선을 확보  
2,3층의 대기공간을 돌출시켜 출동동선을 상시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3 대지 및 프로그램 조건에 순응  
남측의 대모산 자락으로 매스를 돌출시켜 사무실, 대기실,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향과 조망을 확보
- 4 주변 도시적 맥락 속에서 아이덴티티 부여  
세곡동 거주단지 속에서 '세곡119안전센터'임을 알 수 있는 박공의 아이덴티티  
부여

조형 다이어그램



©(주)대림건축사사무소



상 체력단련실 옆으로 조성된 3층 테라스  
하 전면 공간이 내다보이는 창

### 붉은 벽돌의 박공지붕 소방서

소방서 건물 마감은 대부분 붉은색이다. 시민들의 눈에 잘 띄도록 가시성을 우선순위에 놓다 보니 붉은색을 선호한다. 세곡119안전센터도 붉은색을 사용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장 마감이 아니라 박공지붕의 붉은 벽돌 마감이다. 3층에 있는 소방관들의 체력단련실을 세곡주거단지의 단독주택들과 어울리는 집의 모양으로 만들고, 붉은 벽돌 마감에 박공지붕이 도드라지게 계획했다. 그래서 세곡119안전센터는 일반적인 소방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붉은색 마감을 한 소방서보다 오히려 눈에 더 잘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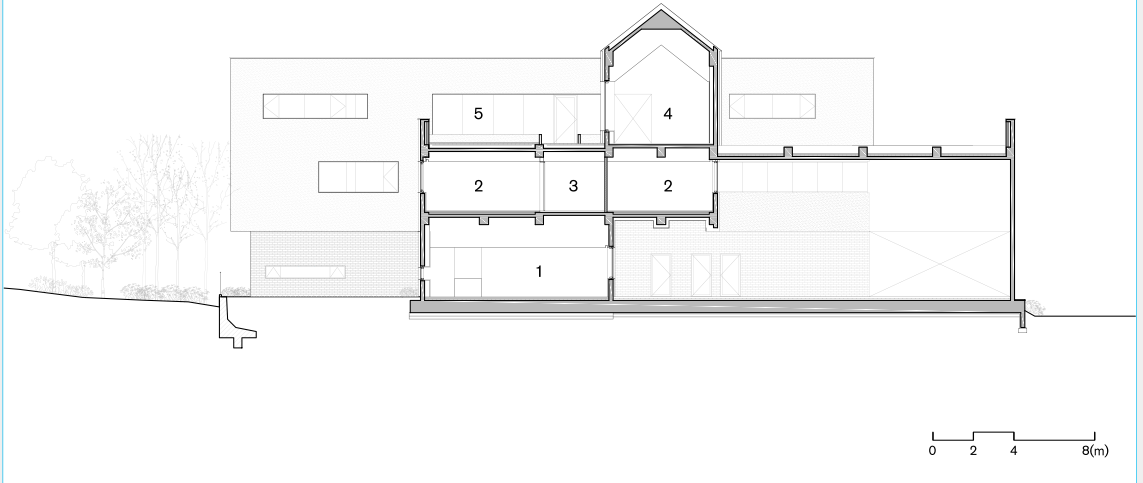
벽돌 건물을 제외한 모든 외벽은 은빛이다. 소방관을 가장 대표할 만한 이미지로 소방호스를 생각했고, 알루미늄을 압출해서 은빛 알루미늄 파이프를 외벽마감재를 제작했다. 붉은색 벽돌로 마감된 박공지붕과 소방호스를 상징하는 은색 파이프의 마감이 서로 대비돼 가시성이 높아졌고, 벽돌 위 119 숫자는 멀리서도 잘 보인다. 동시에 친근한 벽돌집 모양이라 주변의 주택들과 어울리는 동네 소방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 도시경관을 만드는 것은 작은 동네건축

건축물은 민간과 공공의 구분에 상관없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개인의 건축이라도 주변 이웃과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도시의 경관은 대형 랜드마크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의 작은 동네건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들이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우리가 늘 보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에펠탑이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지만 우리는 파리의 고풍스럽고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그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는 작은 카페나 상점이 좋아 그곳에 간다. 그만큼 소규모 건축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으며 동네의 풍경을 만드는 중요한 공공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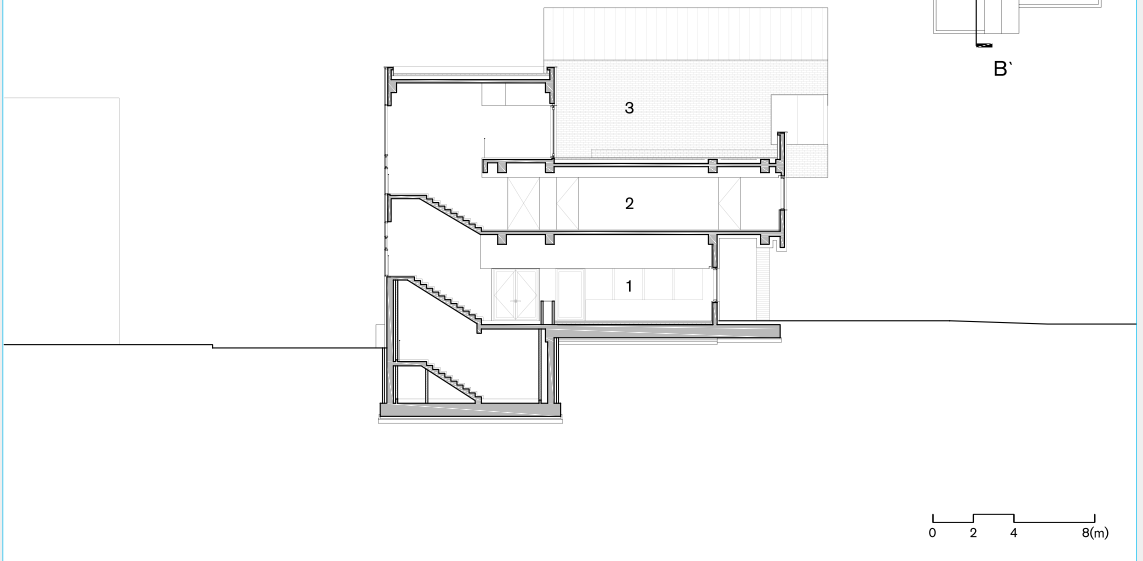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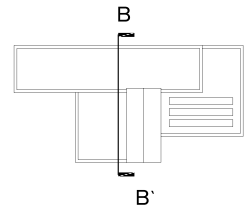
김성홍 교수는 자신의 저서 <길모퉁이 건축>에서 우리 도시의 가능성이 중간건축에 있다고 말한다. 전국의 총 650만 개의 건축물 중에서 5층 이하의 건물이 97.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1%도 안 되는 고층건물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심의 이면도로에서 가끔 마주치는 좋은 건축이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 사무실
- 2 출동대기실
- 3 복도
- 4 체력단련실
- 5 테라스



중단면도

- 1 사무실
- 2 복도
- 3 테라스



횡단면도



상 3층 테라스 공간  
하 빠른 출동을 고려한 계단실 배치

최근 들어 우리의 작은 공공건축이 변하기 시작했다. 세곡119안전센터 역시 서울시 공공건축가제도에 의해 탄생한 건물이다.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주민센터 등 우리의 일상 속 공공건축이 달라지면, 동네 골목의 풍경이 변하고 우리의 도시와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 공공건축의 변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명현상에 당선돼 우리는 세곡119안전센터를 설계하게 됐다. 설계가 시작되고 공공건축 설계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수많은 충돌과 좌절을 잘 버텨내고 최종납품을 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설계보다 공사기간에 더욱 큰 난관에 봉착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작은 공공시설이라 다행히 감리업무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1년 동안 나는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했다. 보통 토목공사와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사무실의 담당 팀장이 수시로 방문해 감리의 기본업무를 진행한다. 물론 그 기간 중에도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회의가 진행된다. 어쨌든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내외장 마감공사가 시작되면 나는 담당 팀장이 현장에 가는 횟수의 3분의 1 정도 일정에 동행한다.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당초 계획된 설계도면과 충돌하는 현장상황에 대한 디자인 관련 대처, 마감재료의 승인, 디테일의 해결방안 등등이다. 들이는 시간으로 치면 설계기간에 비해 절대 적지 않지만, 감리계약은 수의계약의 범위였다.

좋은 건축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만들어진다. 특히 작은 건축일수록 더욱 그렇다. 건물의 규모, 면적, 공사비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공공건축의 설계 및 감리비의 산정방식은 규모, 면적, 공사비에 비례한다. 복잡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긴 하지만 들이는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도 늘 실행률을 계산해 왔다. 민간 프로젝트 혹은 조금 큰 규모의 공공프로젝트의 실행률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였다. 세곡119안전센터 설계의 실행률은 100%가 조금 넘었다. 회사의 이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다. 그런데 감리의 실행률은 200%가 넘었다. 100원을 받아 200원을 썼다는 말이다.

작은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다. ‘나, 지금 뛰하고 있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작은 공공건축물 설계 의뢰를 받아도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젊은 후배 건축가들을 소개해 준다. 하지만 늘 마음이 편치는 않다. 그들의 노력이 마치 뉴스를 장식하는 ‘열정페이’ 논란의 인턴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내 집을 옮겨준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점도 가끔은 있다. 세곡119안전센터처럼 서울시건축상을 받기도 하고, 프로젝트 수주가 없던 시기에 회사의 운영을 조금은 도와주기도 한다.

몇 년 전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법안으로 건축계가 폐시끄러웠다. 새건축사협의회에 요청으로 건축 관련 세 단체가 모여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에 참석했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았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건축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나에게 는 실행률 200%의 말도 안 되는 감리계약이지만 누군가에겐 이윤이 쏠쏠한 업무라는 사실 말이다. 「건축법」에 명기된 최소한의 감리 업무만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신 내가 설계를 하며 고민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준공된 이후에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공공건축의 변화는 젊은 건축가들의 열정을 먹고 자라고 있다.

©(주)대림건축사사무소



상 대모산 자락의 자연과 연계한 소방서 모습  
하 대모산이 바라다보이는 남측 창